

당신은 구원을 받았는가?

(누가복음 17:11-19)

*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메시지

옥 성 석

(서울 충정교회 담임 목사)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이 물음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의 일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교회에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구원과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나 자신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상반되는 듯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10:9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선행이나 착한 행실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으로 고백하느냐에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의 연륜이 어떤 것인지, 잘못을 했는지 안 했

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명백하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두 번째의 구원에 대한 견해는 마태복음 7:21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말씀 전파와 기도 생활을 많이 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겠으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지적당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진단을 해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은 대단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고침을 받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열쇠는 19절(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문둥병을 고침 받은 열 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이, 즉 예수님께 돌아와 경배 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구원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19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면,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15-17절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믿음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확증은 진정어린 감사가 나에게 있는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가 중요합니까?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② 감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고 인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자는 내가 이 일을 했고 내가 노력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심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감사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첫째로, 참된 감사는 찬양으로 표현됩니다(15절). 본문에 보면 “큰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찬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찬양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가슴 속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찬송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나타납니다(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이 말은 우선 순위를 예수님에게 먼저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내가 참된 예배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눅 15:19). 마지막으로 참된 구원을 받은 자는 물질을 주님께 드렸음을 말합니다. 이렇게 감사는

물질로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마 6:21). 이 문둥병자에게 변한 것은 단 한 가지, 그의 힘과 공력으로 고칠 수 없었던 문둥병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적인 조건이 없다 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깨끗이 씻을 수 없었던 영적 문둥병(죄악)이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야말로 구원 얻은 확실한 징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그 감사가 예배로, 찬양으로, 물질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성도는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 표지 감상

결실의 원리와 기독교의 기본 진리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는 결실의 원리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가지가 나무의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그 진액을 흡수하고 성장, 결실함으로써 농부에게 기쁨(영광)을 안겨 준다. 반면에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어 불에 던지움을 받게 된다.

우리 사람은 원래 나무의 원줄기(생명의 근원자)인 하나님께 붙어 있던 가지로서 그 생명의 진액을 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꽃을 피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영광 돌리는) 하는 열매(8절 참조)를 맺으며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며 누림으로써 사람된 본분을 다할 수 있었던 존재였었는데 불행하게도 죄악의 벌레가 가지를 갉아 먹어 그 가지가 떨어져(범죄 타락) 말라 죽게 되고 불에 던지움(사망과 지옥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생명의 원줄기에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 원상태로 회복(구원)케 되었다(롬 11:17 이하 참조). 그 '접붙임을 받은 자'란 '주 안에 거하는 자' 곧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이다(요 15:17~18).

오곡 백과가 풍성한 이 가을철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에 우리 성도들은 이 표지의 그림처럼, 영적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며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갖가지 열매를 맺고 거둬들이 더욱 풍성해야겠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마 3:8), 성령의 열매(갈 5:22-23),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감사의 열매, 의의 열매(롬 6:22), 찬미(입술)의 열매(히 13:15) 등등. —최—